

7월 2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2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실적·지표 개선vs 급등 부담	단기 급반등에 따른 가격부담 속에 미 증시 주요 지수의 방향이 엇갈렸음. 기업들의 기대 이상의 실적이 이어지고 주택 지표 호전도 가세했지만 차익매물이 늘어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음. 다우지수는 한주간 7.3% 상승, 3월 초 이후 주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1.58포인트(0.08%) 오른 1,886.61로 강보합을 유지했음. 반면 S&P500지수는 0.36포인트(0.04%) 물러선 940.38로 장을 마쳤음. 이날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되었음.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금융주들이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제너럴일렉트릭(GE), 메텔 그리고 전날 장 종료 후 실적을 발표한 IBM 등 주요 기업들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음.
유가 63달러 회복	미국 주택지표 회복으로 수요 증가 기대가 살아나며 국제유가가 사흘 연속 상승, 배럴당 63달러선을 회복.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54달러(2.5%) 상승한 63.56달러로 마감했음. 이번 한주간 6% 상승, 5주만에 처음으로 주간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했음.
주택 착공건수 최고치	미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6월 주택 착공 건수가 58만 2,000건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5월 착공 건수도 잠정치 53만 2,000건에서 56만 2,000건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6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53만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음.
모비우스 "中 시가총액 3년내 미국 넘어선다"	모비우스는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국영기업들의 주식시장 상장과 중국인들의 주식투자 증가에 힘입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 중국의 시가총액은 현재 3조 2,0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의 11조2,000억 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올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4.1% 상승한 한편,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75% 급등. 모비우스는 "국영기업들의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국인들은 이제 막 주식투자를 시작했을 뿐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설명.

제목	주요 내용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 300억弗 웃돌 전망	국토해양부는 19일 해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올해 전체 수주 목표액인 400억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 특히 7~8월중 수주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정유공장과 말레이시아 정유공장, 아랍에미리트(UAE) 가스플랜트 등을 포함해 16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 국토부는 중동·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를 웃돌아 이 지역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우디와 UAE, 알제리 등에서 170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전망.
한국관련펀드 3주만에 자금유출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 한국관련펀드에서 1억 5,500만달러가 유출됐다. 직전주인 2일부터 8일까지는 5억 1,000만달러가 순유입됐음. 신흥지역펀드에서는 2억 1,100만달러가 빠져나갔고, 선진지역펀드에서는 10억 5,200만달러가 유출. 집계대상 한국관련 해외뮤추얼펀드는 한국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이머징마켓펀드(GEM Fund),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펀드(Asia ex Japan Fund), 인터내셔널펀드(International Fund), 태평양지역펀드(Pacific Fund) 등 4개임.
삼성·LG폰, 글로벌 점유율 신기록 세우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의 글로벌 점유율 합계가 사상 최초로 30%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9일 업계에 따르면 노키아는 지난 16일 2분기에 매출 99억 1,000만 유로, 순이익이 3억 8,000만 유로로 집계됐다고 발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5% 급감한 것이며, 순이익 역시 66% 줄어들었음. 이에따라 점유율도 하락했음. 노키아의 지난 2분기 글로벌 점유율은 38%로 추정. 업계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제품 경쟁력을 갖췄고 특히 폴터치스크린폰 등 프리미엄 제품군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며 "2분기 30% 점유율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